

더민주 당권주자 4인 출사표...5일 컷오프는 누구

“광주정신 회복...반드시 정권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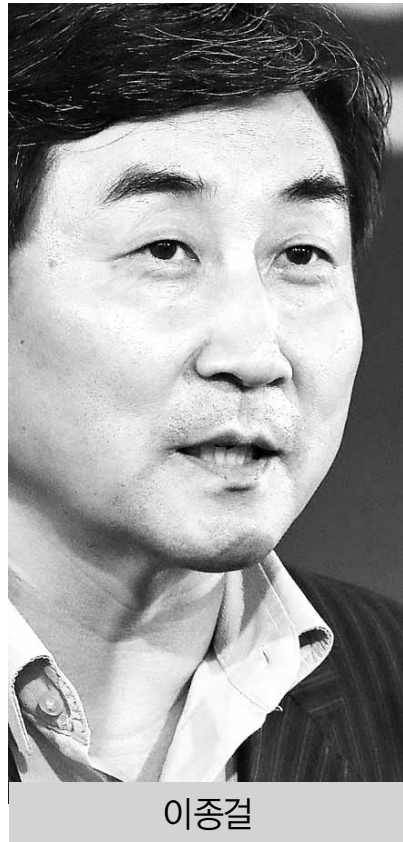
추미애

“호남은 내 정치의 심장 예산·인사 소외 개선”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추미애, 송영길, 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4파전으로 시작된 당권 경쟁 구도는 오는 5일 컷오프(예비 경선)를 거쳐 3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오는 27일 선출되는 대표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는 물론, 야권 통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다.

특히, 호남 민심의 흐름은 더민주의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당내 주류인 '진보 후보'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표심의 분산이 불가피, 호남 표심이 합쳐져야 당권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권의 심장적인 호남 표심의 지지를 얻는다면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지역 등에서의 호남 대의원들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어 대세론 형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 당권 주자들은 앞 다퉈서 '호남의 적통'임을 강조하며 호남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더민주 당권주자들과의 서면 및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호남 지지



이종걸

“무난한 경선 대선 필패 비주류가 돼야 확장성”

의 당위성과 호남 공약, 야권 통합의 방법론 등을 들어봤다.

◇송영길=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을 지켜본 시대의 목격자이자 실천가의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학생·노동 운동에 투신한 것은 물론 인권 변호사 활동 중에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 5월 광주정신을 삶의 근간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호남 공약으로 김대중 정신을 호남에 가두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는 한편 광주 정신의 회복을 통해 더민주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당 대표로서 호남의 인재와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야권통합의 시작은 호남 민심이 납득할 수 있는 대표의 선출을 꼽았다.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주자가 대표가 돼야 호남 민심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야권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미애=광주·호남 정신은 추미애 정치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의 '3보 1배' 등 통합의 호남 정신을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더민주와 나아가야 야권의 통합을 이



송영길

“5월정신은 삶의 근간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뤄내겠으며 호남의 염원인 정권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 공약으로 대표가 호남특위위원장을 맡아 예산과 인사를 챙기는 한편, 매일 호남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정책연구원 분원을 호남에 설립, 맞춤형 지역 공약을 창출하는 한편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와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는 당내 통합을 먼저 이루겠다는 '단계적 통합론'을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의 역동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걸=“무난한 경선은 무난한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당내 친문 표심의 향배가 당권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류 후보가 무난히 대표가 된다면 호남의 기대도, 정권 창출을 바라보는 국민적 염원도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의 위기 때마다 방향타 역할을 했던 호남 민심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가 된다면 상처 받았던



김상곤

“野 통합의 종갓집 지어 대선 전 반드시 통합”

호남 민심의 치유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한편, 더민주의 호남 정체성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호남 민심과 함께 야권의 정권재창출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야권통합과 관련, 더민주의 대표가 해야 할 일을 야권의 대선 라운드를 만드는 일이라며 비주류 주자가 대표가 돼야 정권 창출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처럼 살아왔다는 김 전 위원장은 대표가 된다면 정권 창출과 광주·호남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호남민심의 혁신·통합 동력으로 정권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호남 공약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조성, 젊은 농어촌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야권 통합의 방법론으로는 호남 정신의 대지 위에 야권이 모두 모여드는 '마당 넓은 종갓집'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의 야권 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 정권 교체를 지렛대로 내년 대선 이전에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복귀 발표만 남았다

해남 행사 참석 “물러설 곳 없어”...이달말·9월초 관측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9일 해남군 해남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계 지지자들이 주최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한마당'에 참석해 “더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 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내 새판짜기 움직임과 맞물려 지형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손 전 대표에게 그동안 '러브콜'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한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지금은 사방이 막 막혀 우물에 빠진 돼지 형국”이라며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땅끝 해남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분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 오늘 많이 배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며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공식적인 정계복귀 선언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 전 대표 측 인사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수위의 내용”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민국 개조'에 대한 저서 출판 시점을 기해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시기와 관련해선 그동안 더민주의 8·27 전당대회 직후인 '8월말·9월초' 설이 적잖이 제기된 가운데 9월 추석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손 전 교문은 복귀선언 후 더민주나 국민의당 등 기성정당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분간 외곽행보를 이어가면서 구체적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핵심관계자는 “정당을 통한 우회적 정치 보다는 민생탐방, 강연정치 등을 통해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당분간 더민주나 국민의당 등 기성정당에 들어가 같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운영일 의원, 더민주 김영록 지역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과 당권 도전 선언 뒤 호남을 찾은 더민주 이종걸 의원도 찾았다.

한편, 손 전 대표는 다음날인 30일에는 강진정자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강진 출향인사들과의 만남을 갖는 등 광복 행보를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새누리 당권 열흘 열전 돌입

창원서 첫 합동연설회...3일 전주·5일 천안·6일 서울 순회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권레이스가 지난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그동안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언론을 통하거나 지방의 당원들을 찾아 '공중전'을 벌였다면 이번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모두가 한자리에 나와 경쟁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경선전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당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비교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이정현·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교호순) 등 5명의 당대표 후보와 11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제히 '혁신과 화합'을 부르짖으며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장은 섭석 30도를 훨씬 넘는 기운을 보였지만 7000여명이 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로 가득 차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산시장·경남도당·대구시장·경북도당 등 지역별로 나눠 앉은 지지자들은 지지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후보 동영상을 상영 후 정경표로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후보자들은 본인들의 장점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한편, 이날 합동연설회 이후 오는 3일 전북 전주(화산체육관), 5일 충남 천안(유관순체육관),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